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16 안동 연미사 제비원 석불



▶한줄 요약
더불어 살 때 미륵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다.

민초들 간절함에 나투신 미륵부처님

성주의 본향, 안동 제비원

경상북도 안동은 봉정사,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도 좋지만, 발길이 다소 뜸한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한때 철도 옆에 자리하여 늘 위태위태하였던 신세동칠층전탑, 구 안동역 옆에 자리한 동부동오층전탑과 당간지주, 승용차로 좁은 산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뵙는 옥산사마애여래좌상, 하회마을 옆에 위치하여 덜 찾게 되는 병산서원(백일홍이 만발한 8월 강추) 등이다. 물론 제비원 석불(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마애(磨崖)는 암벽에 새겼다는 뜻이다.

지금 제비원 석불 주위는 솔씨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곳 안내석에 적힌 이야기를 약간 다듬어 보자.

옛날 이 자리에는 관리들이 출장길에 묵어가는 원(院, 여관)이 있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연이 처녀가 원에서 심부름하며 길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부잣집 김씨 총각이 꿈속에 죽어서 저승에 갔다.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저승 창고에 재물이 쌓이는데, 너는 세상에서 못된 일을 많이 하여 저승 창고가 비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연이의 재물을 빌려 인정을 베풀어 그 죗값을 갚아라.' 김 총각은 저승 창고에 있는 연이 처자의 재물을 빌려 저승에서 인심을 썼다. 꿈에서 깨어난 김 총각은 예사 꿈이 아니라 생각하였다. 곧 연이를 찾아가 저승 일을 말하며 재물로 저승 빚을 갚았다. 연이는 그 재물로 큰 법당을 지었다. 대목(법당 짓는 이)이 법당의 마지막 기와를 덮고 제비가 되어 날아갔으므로 연비사라 하고, 원이름도 제비원이라 하였다. 아침저녁 법당에서 기도하던 연이 처녀가 38세의 나이로 죽자 바위가 갈라지면서 큰 돌부처님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연이의 혼이 변해서 지금의 미륵불이 되었다.

제비원 석불과 그곳에 자리한 사찰 이름 연(燕, 제비)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다. 현재 절은 연미사(燕尾寺)라 불린다. 요사채가 제비의 꼬리를 닮았으므로 연미사다. 그 외 연(燕)자 돌림으로 몇 가지 이름이 있다. 법당이 제비의 부리에 해당하므로 연구사(燕口寺)라 하였다. 옛날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전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비와 비슷하여 연자루(燕子樓)라 하였다. 지금도 바위에는 주춧돌을 놓았던 홈이 남아 있다. 누각의 전체 형태가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이므로 연비사(燕飛寺)라 하였다. 한편 사찰이 위치한 산은 오도산(五圖山)이다. 오도(五圖)란 불상, 연자루, 삼층석탑, 연미사, 소나무의 다섯 가지가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동 이천동 석불. '제비원 미륵'으로 불린다.

1608년에 작성된 안동의 읍지 〈영가지〉에 의하면, 연미사는 634년(신라 선덕왕 3년)에 창건되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고승 보덕 스님의 11명 제자 가운데 '명덕 스님이 연구사(燕口寺)를 창건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연미사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비원은 옛날 이곳에 나라에서 마련한 여관에서 유래한다. 출장길 관리 등의 숙소였던 연비원(燕飛院)이 훗날 제비원으로 바뀐 것이다. 제비원은 성주풀이에 등장한다.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라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 받아…" 성주는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가신(家神) 중 한 분이다. 집을 하나의 성으로 보고, 성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성주라 한다. 성주신에게 내 어려움을 모두 알리고, 그의 도움을 받고,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그를 즐겁게 해드려서 소망을 이루고자 제사를 지낸다. 이를 '성주풀이' 또는 '성주풀이 굿'이라 하며, 줄여서 '성주굿'이라 한다.

민초에게 나타난 미륵부처님

제비원 석불은 부처님 몸을 새긴 바위 위에 불두(佛頭)를 올린 불상이다. 즉 높이 9.95m, 너비 7.2m의 암벽을 몸으로 하고 그 위에 2.43m 높이의 머리 부분을 조각하여 얹은 불상이다. 창건 당시 모신 불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조성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한다. 안동시 이천동에 위치하여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이라고 명명하지만, '제비원 미륵'으로 더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 울퉁불퉁한 석불 목 부분.

제비원 석불은 미륵불인지 아미타불인지 하는 논쟁이 있다. 간혹 처음에는 어떤 부처님으로 모셨는지 모르지만 이후 민초들의 간절함에 따라 미륵불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안동 이천동 석불 역시 명확한 기록은 현재 없다. 즉 처음에는 어떤 부처님으로 조성했는지 모른다. '제비원 미륵'이라고 하듯이 안동 사람들에게는 미륵부처님이다. 그렇지만 아미타부처님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연 암벽에 새겨진 손을 자세히 보면,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위치하며, 두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아미타부처님이 하시는 수인(手印, 손 모양)이다.

그런데 제비원 석불이 단지 민초들의 간절함으로만 미륵불이라 불리는 것은 아니다. 석불 뒤쪽 언덕에 있는 삼층석탑과 연결하여 미륵불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경전에 의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이 마하가섭존자에게 당부하셨다. '마하가섭존자는 열반에 들지 말고 기다렸다가 미륵불이 세상에 나타날 때 나의 가사를 전해주라.' 이에 존자는 계족산에서 긴 세월 선정에 들어 있다. 이후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석가모니부처님의 가사를 전한다. 그리고 곧 존자의 몸에 불이 저절로 일어나 열반에 든다. 이때 대중들은 존자의 사리를 수습하여 산꼭대기에 탑을 세운다. 따라서 제비원 석불은 미륵부처님이고, 삼층석탑은 마하가섭존자의 탑이라고 본다.

현재 사찰 측에서는 미륵부처님으로 모시고 있다.

석불의 목 부분이 울퉁불퉁한 이유

제비원 석불은 부처님 몸을 새긴 바위 위에 부처님 머리 부분을 올렸는데, 연결된 목 부분이 마치 염주를 걸고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하다. 이 울퉁불퉁한 목 부분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형제가 세상에 뛰어난 조각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제일가는 조각가는 둘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지기 싫어하는 형제는 내기를 걸고, 그 내기에 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 내기는 바로 석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약속된 날까지 동생은 훌륭한 석불을 만들려고 열심히 돌을 갈고 다듬었지만, 형은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다. 약속된 날이 되자 동생은 그날까지 석불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형은 석불의 머리만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 불상을 완성했다. 내기에 진 동생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 만든 미완성 석불은 개천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 지금 제비원 석불의 목 부분이 울퉁불퉁한 것은 형이 머리 부분만 조성하여 이어 붙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야기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움 요청으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다. 마침내 왜군이 물러나고 난리가 평정되자 이여송은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훌륭한 인물이 날 자리를 골라 혈(穴)을 끊었다. 그러다가 안동 제비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이 우뚝 선 채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상하게 여긴 이여송은 주위를 살펴보니 근처에 큰 석불이 서 있었다. 저 석불 때문에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여송은 칼로 석불의 목을 쳤다. 석불의 목이 땅에 떨어지자 비로소 말발굽이 떨어져 움직일 수 있었다.

석불의 목 부분에는 아직 가슴으로 흘러내린 핏자국이 있고, 왼쪽 어깨에는 말발굽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때 떨어진 목은 어느 스님이 와서 제자리에 갖다 붙였는데, 붙인 부분을 횟가루를 바르면서 염주 모양으로 울퉁불퉁 나오게 다듬어 놓았다.

이 땅에 도움을 주고자 온 명나라 장수에 대해 이처럼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그 당시나 그 이후 조선과 중국의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백성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아마 예나 지금이나 경쟁 사회를 제비원 석불을 소재로 풍자했으리라. 김 총각이 연이 처녀에게 재물을 나눴듯이, 경전에 의하면, 더불어 살 때 미륵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데….

〈불교학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